

학부모님 꼭! 읽으세요.
자녀의 대학이 바뀔 수 있습니다.

책은 읽지 않고 유튜브만 보는 아이들...
영어 해석을 보고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아이들...
수학 지문을 보고 무엇을 묻는지 모르는 아이들...

모든 성적은
독해력이
결정한다

우리학원 독해력 훈련소

국어하다

www.koreahada.com



하루 10분!

성적을 올리는 가장 빠른 방법, **국어하다**

매일 10분 자연과학 / 인문사회 / 인성
균형잡힌 국어독해로 진짜 학습력을 높여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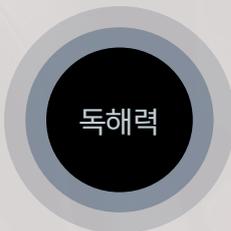


독해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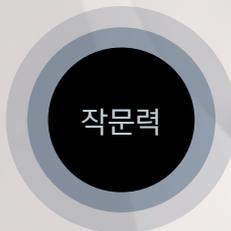
독해를 못하면 **성적이 흔들린다**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는 지식중심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움은 언어를 이해할 때 가능하고, 배움을 기억하고 재생하여 표현하는 모든 것이 언어활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모든 교과의 지식은 언어를 통해 이해되고, 국어를 통해 완성됩니다.

독해를 통해 만들어지는 학습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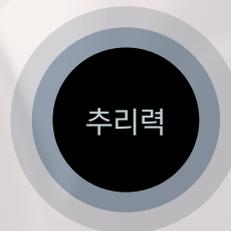
읽고, 듣고,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



생각을 글이나 말로 표현하는 능력



수학의 문제해결을 위한 논리적 사고방식



모르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는 능력



현상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01

초등국어 중심의 기초학력은 고3 성적의 85%를 좌우한다

초등국어의 학력부진은 중·고등학교의 학업실패로 이어집니다.

초등학교 때 독해력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학생은 학업성취도가 우수하고, 학습능력에 대한 자신감도 얻게 됩니다.

02

국어 이해도가 높은 학생은 외국어도 더 잘할 수 있다

영어도 국어와 같은 언어입니다. 영어학습은 국어와 같이 언어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영어 문법, 독해도 국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어휘력에 따라 실력이 좌우됩니다.

국어의 이해력 부족은 영어의 독해력, 국어의 언어 구성력 부족은 작문력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03

국어에 대한 이해력을 가져야 수학에 대한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다

수학은 수와 기호로 구성된 교과로서 논리적 사고방식과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는 학습입니다.

수학은 수와 기호라는 언어로 이루어진 약속의 체계입니다.

※ 모든 성적은 독해력이 결정한다!!! ※

국어가 안 되면 영어도 안 됩니다.

2018[2019]수능 오답률 1위 75.8%문제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33. Heritage is concerned with the ways in which very selective material artefacts, mythologies, memories and traditions become resources are selected according to the demands of the present; an imagined past provides resources for a heritage that is to be passed onto an imagined future. It follows too that the meanings and functions of memory and tradition are defined in the present.

Further, heritage is more concerned with meanings than material artefacts.

It is the former that give value, either cultural or financial, to the latter and explain why they have been selected from the near infinity of the past. In turn, they may later be discarded as the demands of present societies change, or even, as is presently occurring in the former Eastern Europe, when pasts have to be reinvented to reflect new presents.

Thus heritage is _____.

- ① A collection of memories and traditions of a society
- ② as much about forgetting as remembering the past
- ③ neither concerned with the present nor the future
- ④ a mirror reflecting the artefacts of the past
- ⑤ about preserving universal cultural values

교사 생각

이 문제는 가장 많은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오답을 제출한 문제로,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세부사항까지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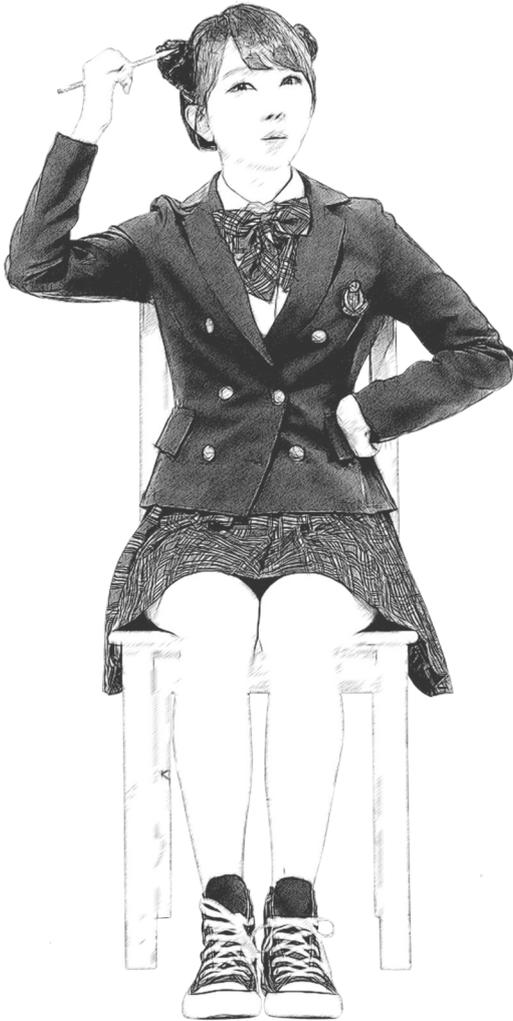
첫 번째 부분에서는 현대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선별되어지는 문화유산에 대해 말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미 선정된 문화유산일지라도 사회 변화와 요구에 따라 개념과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다소 복잡한 내용이었지만 글의 전개 방식을 파악한 학생들은 연결사의 힌트를 먼저 볼 수 있었을 것이다.

In turn, Thus를 보고 글의 구조를 먼저 파악했다면, 오답의 함정(많은 학생들이 1번을 택함)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영어도 국어처럼 글을 보고, 글의 전개방식 파악하기, 글의 키워드를 통한 글의 중심내용 파악(요약)하기, Paraphrasing(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말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기) 등의 세 가지만 잘 연습한다면 문맥상 어렵게 느껴지는 위와 같은 문제도 큰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다.





"지문이 너무 길어서
내용 정리가 잘되지 않아
시간 조절이 어려웠다"

- 수능을 보고 나온 고3 학생의 말 -

학부모님께...

이제 영어와 국어 문제는 비판적 사고력, 추리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로 변화하였습니다.

영어 지문도 본문의 길이가 웬만한 국어 지문만큼 긴 것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긴 본문을 접하게 되면 문제를 읽으면서도 **문장을 이해하지 못해 문제풀이를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포기**하기가 다반사입니다. 나중에 집에 와서 풀이과정 해설을 보고 나서야 "아~ 이런 문제였구나. 정말 쉬운 문제인데..."하고 한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어의 의미를 모르거나 전체 글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해서 생기는, 즉 언어적 능력이 결여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학교수행평가 문제도 단순히 Text를 읽는 문제가 아닌 어떤 상황을 글로 주고 상황을 **언어적으로 해석하고 풀어내는 문제가 대다수**입니다. 학교시험에서 지필고사 비중은 갈수록 작아지는 반면, **수행평가비중이 40%**에 이르고 있는데, 앞으로 수행평가 비중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시험성적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시험의 기본은 독해력입니다.

영어, 국어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은 현재 학생들이 치르는 수많은 시험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험성적과 직결되는 **독해력**이란 '지문을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요약하고 기억한 뒤 문제조건과 지문을 연결하는 힘'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읽고, 요약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독해력은 결코 늘지 않습니다. 물론 평소에 엄청난 독서를 소화한다면 자연스럽게 독해력이 체득될 수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시간을 독서에 투자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독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국어하다] 프로그램이 해답입니다!!!

국어하다가 학생들의 문제해결력에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국어하다가 문장체 서술형 문제의 정답을 말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우리학원 독해력 훈련소

국어하다

www.koreahada.com